아이유 "드라마 끝나면 많이 성장해 있을 것"

tvN 수목극 '나의 아저씨' 간담회

이선균 "아이유와 호흡 정말 좋아"
성추문 오달수·자극적 소재 논란에도
시청률 3~4%에 시청자 호평 이어져

tvN 수목극 '나의 아저씨'에는 인간 군상이 등장하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차가운 현실을 온몸으로 버텨내는 스물하나의 이지안이다.

이지안을 연기하는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25)는 '나의 아저씨'를 잘 끝내면 스스로 많이 성장해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아이유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나의 아저씨' 기자간담회에 작품 속 '칙칙한' 의상 그대로 등장했다. 파트너 이선균에 따르면 아이유의 아이디어였다고 한다.

아이유는 이번 작품에 참여하게 된 데 대해 "지난해 시놉시스를 받았는데 글이 참 재밌고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지안 캐릭터를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며 "그래서 확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PD님이 이 작품을 끝내면 많은 걸 얻어 갈 거라고 해서 믿음이 갔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정말 많이 배우고 있다"며 "지안은 여주인공인데 초반부터 모든 논란과 문제를 다 만들고 다니지 않았느냐. 착하고 밝은 캐릭터가 아니어서 오히려 흥미를 많이 느꼈다. 또 지안의 행동에 대해 극이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게 독특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도청, 절도, 폭력 등 자극적인 장면들이 나오지만 극이 그걸 정당화하진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의 아저씨'의 시청률은 3~4%대(닐슨코리아) 정도로 높은 편이 아니지만,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청자 사이에서는 잔잔한 호평을 받고 있다.

전체 16회 중 6회가 방송된 가운데 지안과 동훈(이선균 분)의 연대감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선균은 형, 동생과의 호흡에 더해 여주인공 이지안을 연기하는 아이유(본명 이지은)에 대해서도 친밀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은 씨와의 호흡이 정말 좋다"며 "지은 씨의 캐릭터가 쉽지 않은데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이지안이 되어 있었다. 이 작품에 임하는 각오가 돋보였다. 싱크로율이 100%로, 노력하는 게 느껴져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저와 달리 내적 갈등이 많은 인물이라 답답한 면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제가 많이 배우고 있다"고 했다.

성 추문으로 하차한 오달수 대신 긴급 투입된 박호산은 "바람직한 사례로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 그 외의 것들을 보면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좋은 작품, 좋은 팀, 좋은 대본에 제 숟가락을 하나 얹을 수 있다면 큰 행운이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새벽은 "이선균 선배님과는 첫 작품이다. 대학로에서는 오다가다 몇 번 봤다"며 "막상 작품에서 뵈니 제가 생각했던 것 그대로다. 회식에서도 애정 어린 말을 해주셔서 그게 굉장히 와 닿았다. 며칠 전 애정 깊은 문자도 주셨다. 닭살이 돋는 멘트였다"고 웃었다.

연출을 맡은 김원석 PD는 "초반에 있었던 여러 오해는 꽤 풀린 것을 체감한다. 제목 중 '나의'는 내 남자, 내 연인이란 뜻보다는 내 엄마, 내 친구, 내 이웃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시청자들도 제가 대본을 읽고 경험한 그 희한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극이 너무 어둡기만 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드라마를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만든다. 코미디의 핵심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 피어나는 웃음이라고 본다. 앞으로 더 기대해달라"고 답했다.

김 PD는 또 "'나의 아저씨'는 '미생', '시그널' 등 그동안 제가 했던 드라마와 궤를 같이한다. '같이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 남성 시청자들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동훈과 이지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여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박동훈은 꼭 저를 보는 것 같다"며 "우울하고 쓸쓸한 내용이지만 마지막에는 따뜻한 드라마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김 PD는 폭력 등 자극적인 소재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는 "그런 것들을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걸 목표로 만든 드라마가 아니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주 수·목요일 밤 9시 30분 방송. /연합뉴스

'예능 대세' 송은이·김숙, 동반 광고 촬영

'예능 대세'로 떠오른 송은이가 '짝꿍'인 김숙과 동반 광고를 찍으며 인기를 증명했다.

송은이가 김숙과 유한양행의 살충제브랜드 해피홈의 광고모델로 발탁됐다고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가 11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송은이-김숙의 밝고 유쾌한 이미지를 더해 해피홈 브랜드를 더욱 친숙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송은이는 비록 김생민의 하차로 아쉽게 폐지됐지만 KBS 2TV '김생민의 영수증'을 만들고 성공시킨 산파이자, 개그우먼 프로젝트 그룹 셀럽파이브를 성공시키며 지난해 말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는 김숙과 함께 팟캐스트 '비밀보장 TV'와 SBS러브FM '송은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하하랜드2' '전지적 참견 시점' '전설의 볼링' 등의 프로그램에 잇따라 발탁되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상파 3사 '뉴욕 TV&필름 페스티벌'서 수상

KBS 5개·SBS 2개·MBC 1개 부문

지상파 3사 프로그램이 나란히 '2018 뉴욕 TV&필름 페스티벌'에서 수상했다.

'뉴욕 TV&필름 페스티벌'은 1957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61년째를 맞는 국제상으로 16개 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올해 행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3사 중 KBS는 총 5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순례 – 안녕 나의 소녀시절이여'는 다큐멘터리 부문, '시사기획 창 – 아가야 미안해'는 시사 부문에서 각각 금메달을 수상했다. 또 단편 드라마 '국시집 여자'는 드라마 특집 부문 은메달, '국민의 마음 캠페인 한국 사람'은 방송사 이미지홍보 부문 은메달, '2017년 대통령 선거 프로그램 및 개표 방송 그래픽'은 그래픽 디자인 부문 동메달을 각각 받았다.

또 SBS는 2개 부문, MBC는 1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SBS는 'SBS스페셜 – 아빠의 전쟁'이 다큐멘터리 문화적 이슈부문 은상, 'SBS 스페셜 – 사건번호 2016 헌나1'이 다큐멘터리 시사문제부문 동상을 각각 받았다.

MBC는 '휴먼다큐 사랑 – 두 엄마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휴먼 컨선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백미인생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TV소설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UHD 부잣집 아들(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징비록 50 UHD 한식의 마음	00 인형의 집(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UHD 부잣집 아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00 이웃집 찰스(재)	30 데릴남편 오작두(재)	55 닥터 365
2	20 안녕! 괴발개발 시즌2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40 에어로버	00 뉴스브리핑
3	00 천상의 컬렉션(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10 통일전망대 50 하하랜드 2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뉴스콘서트	00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스페셜	00 생일왕국의 프린세스 프링 2 15 토이캅 2 30 주간연예수첩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인형의 집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속보이는TV 인사이드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어느 최저 임금 노동자의 눈물〉 55 UHD 숨터	00 추리의 여왕 시즌2	0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00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11	00 KBS 뉴스라인 40 사이언스 오디세이 신비한 인체의 비밀	10 해피투게더 1~2부	10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후보 토론	10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2부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부스포츠 하이라이트	30 스포츠 다이어리 4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II〉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8:45 랄랄라 뿌우
09:00 뚝딱맨
09:15 두다다쿵(재)
09:30 몰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참치 케사디야와 망고 라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3:00 지식채널e
13:10 장수의 비밀
〈95세 일쟁이 할매와 백년손님〉
13:40 다큐 시선
〈용기있는 외침, #미투〉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호기심 소녀 도트.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16:30 랄랄라 뿌우(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사이언스타 Q
〈사이언스타Q 카페를 열어라〉
19:30 EBS 뉴스
19:50 부모성적표
〈칠곡 박보검과 극과 극 아빠〉
20:40 세계테마기행
〈풍경은 영화처럼 흐르고 일본영화기행4부〉
21:30 한국기행
〈내 친구는 동물이로소이다 4부 내 곁에 날고 뛰는 녀석들〉
21:50 다큐 시선
〈사장은 무엇으로 사는가〉
22:45 다문화 고부열전
〈무단 외출하는 며느리, 무기력증에 빠진 시어머니〉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25:05 지식채널e
25:10 과학 다큐-비욘드(Beyon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2일(음 2월 27일 甲戌)

子 36년생 본의 아니게 타의 영향으로 변경될 것이다. 48년생 바른 생각은 복주머니를 만드는 셈이다. 60년생 유사한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72년생 상대의 절실한 요청이 있을 것이니라. 84년생 지체 없이 조처하라. 행운의 숫자 : 57, 27

丑 37년생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49년생 극복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61년생 투명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 법. 73년생 벌여 놓은 것 못지않게 끝까지 챙기는 것도 중하다. 85년생 초심으로써 수용하고 반영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60, 23

寅 38년생 파문을 던지는 이가 있다. 50년생 유대 관계를 갖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62년생 예정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74년생 벼락 치게 서둘러야만 겨우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86년생 충동을 자제한다면 화를 면하리라. 행운의 숫자 : 16, 82

卯 39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51년생 목표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성사의 지름길. 63년생 체면을 의식하다가는 아무런 일도 못한다. 75년생 구체적이어야만 실효성이 있느니라. 87년생 정리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1, 22

辰 40년생 구분을 해두어야만 한다. 52년생 필연적인 관계이다. 64년생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천양지차가 되리라. 76년생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 회생하여 기쁘겠다. 88년생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실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18, 61

巳 41년생 현태에 적응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53년생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 것이다. 65년생 힘의 기반이 생길 것이다. 77년생 일치하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다. 89년생 근본 원인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1, 75

午 42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니라. 54년생 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66년생 대안을 마련하자. 78년생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늠해 보라. 90년생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정진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12, 93

未 43년생 상승 거점을 마련하는 전환기에 와 있다. 55년생 진력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 67년생 조용히 덮어두는 것이 백 번 낫다. 79년생 확대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대하자. 91년생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52, 88

申 44년생 다투면 손재수요, 양보하면 복이 되리라. 56년생 지나치다면 낭패를 보게 될 것임에 뻔하다. 68년생 무의미한 것은 과감하게 탈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80년생 과감하게 시도하라. 92년생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93, 06

酉 45년생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57년생 지나친 집착은 대국을 망칠 수도 있다. 69년생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자. 81년생 제대로 실행한다면 실속 있는 결과를 산출하리라. 93년생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롭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37, 05

戌 34년생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46년생 외부적인 요건까지 두루 갖추어야 할 때이다. 58년생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생긴다. 70년생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른 마당이다. 82년생 다음 코스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5, 87

亥 35년생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놓인다. 47년생 걱정스러워서 마음이 편치 않겠다. 59년생 아직은 실행의 시기가 아니다. 71년생 두각을 나타내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이다. 83년생 가장 쉬운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27, 8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